

같은 세계금융 중심이지만 왜 홍콩의 전염병 상황은 뉴욕보다 대폭 적은가

홍콩에서 매년 접대하는 대륙여행객 인수는 뉴욕의 46 배로서 제일 위험한 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홍콩의 감염인수는 도리어 뉴욕의 1% 밖에 안되는데 무엇 때문일까?



같은 금융중심의 심장지대, 좌측 그림은 : 2020년 3월 12일, 홍콩 중환 황후대로에서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우측 그림은 2020년 3월 28일 뉴욕의 텡빈 시대광장

홍콩과 뉴욕은 모두 세계금융중심으로서 인구도 비슷하다. 홍콩에서 매년 대륙여행객 접대인수는 뉴욕의 46 배로서 제일 위험한 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홍콩의 감염인수는 오히려 뉴욕의 1% 밖에 안되는데 무엇 때문일까?

4 가지 원인이 있다 : 1) 정부를 믿지 않는다. 2) 중공을 믿지 않는다. 3) 세계보건기구를 믿지 않는다. 4) 2월, 홍콩의 의료진은 파업해 대륙과 연결된 변경검측 시설을 폐쇄시켜 전염병 확산을 진일보 방지할 것

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 3 가지 요소는 모두 중공정권을 겨냥한 것이다.

뉴욕이 미국의 “무한”으로 전략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뉴욕은 세계의 제 1의 도시이며, 전세계 금융, 상업, 문화와 매체의 중심이자 연합국 총부가 자리잡은 곳이기도 하다. 중공은 뉴욕의 방방곡곡에 깊이 침투됐다 : 월스트리트와 미국금융 시장은 중공에게 대량으로 수혈 해 주고, 연합국의 신망은 중공에 묶여있었고, 세계보건기구 등 조직은 조종 당했으며,

뉴욕의 정요, 권리계층은 중공을 위해 줄을서서 소리를 냈으며, 중국매체는 미국 주류매체에 돈을 지불해 삽입페이지에 담은 내용은 완전히 정부매체 <중국일보>에서 편집하고, 화인 소구역은 부동한 신앙과 다른 견해 인사들을 타격하는데 이용 당하고, 신화사 선전영상은 시대광장에서 24 시간 방영하는 등등 이다.

홍콩을 돌이켜보면 작년 6월부터 시작해 전염병이 폭발된 12월말까지 “송환법” 항의 운동이 반년이나 지속됐으며, 평화롭고, 이성적이며, 비폭력적인 행진인수는 최고로 200 만명을 돌파했다. 항정의 주류는 종래로 “홍콩 독립”의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고, 반항의식의 초점은 점점 중공에 집중됐으며, 항의 구호도 “공산당을 쫓아내자!”, “신과 동행하다” 심지어 후에는 “천멸 중공”으로 변했다. 최근 홍콩인은 “홍콩보안법”반대 대행진을 거행하면서 더욱 많은 “천멸 중공, 천우 중화”란 표어를 들었다.

무한 병독은 중공을 겨냥해 왔다. 홍콩인은 무의식중에 가장 효력있는 방역을 한 것이다.

대만은 성 봉쇄를 하지 않았지만 감염자는 몇 백명 밖에 안되는데 대만은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

대만은 성을 봉쇄하지 않았고, 소구역을 봉쇄하지 않았으며, 수업, 소풍, 헬스, 휴식일

도 여전했으며, 공장도 정지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반대로 오다는 더욱 늘었다. 하지만 감

염자는 몇 백명 밖에 안되는데, 대만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2면에 계속)

(1면의 계속) **1**대만 방역중심은 의학 전문가로 조성됐으며, 방역센터는 매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염병 정보는 투명하고, 진실하며, 곧바로 전사회를 향해 직접 생방송으로 질문에 대답했다. 1월 3일에, 대만은 무한 폐렴 병독을 신종코로나 병독으로 판단하고, 7일에 무한여행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으며, 15일에 질병관리 센터에서는 “사람간에 전염된다”고 확정했다. 중국 대륙과 비교해 봤을때 더욱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1월 18일, 호북성 무한시에서는 그럼에도 “만가연(万家宴)”모임을 거행했는데 그

후 사회구역에서 단체 감염이 폭발했다. 1월 23일, 무한은 전면적인 성 봉쇄를 실시했다.

2대만은 중국대륙역병지구 인사들의 출입경을 과감하게 금지했다. 대만은 “중공을 반대하지 중국을 반대하지 않으며”. 현임정부는 중공에게 자금을 주지 않았고, 그 어떤 굴복 혹은 애매모호하지 않았다.

3적극적이고도 겨냥성이 있는 방역과 방지로 1주일에 만명을 검측하여 대만 “사회구역에서 전파의 가능성이 거이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 이는 중공이 적은 확진수치를 위해 거의 검측하지 않은 정책과는 선명

한 대비를 이룬다.

4대만은 어떻게 신속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었을까? 전 위생서질관국국장 수이런은 중공은 신임할 수 없고 세계보건기구의 수치마저 모두 실제상황보다 뒤떨어졌기에 그들의 수치는 모두 참고로 삼을 뿐이라고 표시했다.

홍콩 “송환법”은 대만의 젊은이들에게 캔디는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홍콩인들이 빈번히 탄압받는 것을 보며 대만은 중공에 대한 고도의 경계 심리를 세웠고, 청성한 매개 대만인들은 중공을 믿지 않았기에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홍콩 보안법” _ 새로운 “베를린 장벽” 중공은 말세의 두려움을 폭로



5월 24일, 홍콩에서 “홍콩 보안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거행했다. 수만명 홍콩인이 거리에서 다섯 손가락을 내밀며 (다섯가지 요구) “천멸 중공”이란 표어로 호소했다.

5월 28일, 인대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결의했다. 이는 홍콩에 새로운 “베를린 장벽”을 세우는 것 마냥, 홍콩을 동베를린과 같은 자유세계가 중공을 대치하는 전초와 초점으로 만들려고 한다.

공공연히 “일국양제”를 찢어 버린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국가를 분열하고, 공포활동과 외부세력으로 간섭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홍콩 입법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홍콩 <기본법> 첨부 3에 올려 실시하는 것이다. 인민대표대회에서 직접 “홍콩 보안법”을 공포하는 것은 홍콩입법회를 에돌리고 홍콩 입법권리를 박탈한 것이며, 결국 “일국양제”는 곧 사망 (해제) 됨을 알리는 것이다. 금후 중공은 홍콩에 직접 경찰, 특무, 국가보안을 파견해 마음대로 사람을 구속하고, 홍콩법원을 경과하지 않고도 직접 대륙으로 데려가 심판할 수 있게 됐다. 중공이 싫어하는 시위행진, 출판, 결사, 외국매체의 채방을 받는 등등은 모두 전복죄로 판정 받을수 있고, 심지어 홍콩을 경유하는 것만으로도 구속 될 수도 있다.

중공은 말세에 대한 공포심리를 스스로 폭로하다

중공이 이시각에 다급히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곧 다가올 말세의 공포때문 (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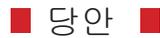
(2면의 계속)이다. 중공이 전염병 상황을 은폐해 세계를 기만 했기에 100 여개 국가의 책임을 추궁 받게 되었고 전세계에서 중공을 반대하는 소리가 갈수록 높아지자 이것은 중공으로 말하자면 멸망에 이른 큰 재난이 되었으며 체면을 잃는 가운데 정권까지 위기에 처했으니 기편의 대가는 갈수록 커져만 갔다. 중공은 홍콩을 타격하면서 당전의 위기를 없애려고 했다. 중공은 홍콩인들의 민주와 자유를 위해 개최하는 운동을 보면서 커다란 위협을 느꼈고, 수습하기 어렵다고 여겼다. 국내에서도 시범효과를 일으킬까봐 걱정되어 국내 전염병이 느슨해지고, 각 국에서 돌볼 여유가 없을때 단번에 홍콩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또한

국제적 책임추궁에 대한 압력을 전이시키고, 계속 국내민중들을 기편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중공은 형세를 잘못 판단했다. 오늘의 홍콩은 절대로 예전의 베를린이 아니다.

죽음의 종소리는 누구를 위해 울리는가

중공의 작법은 홍콩인의 거대한 분노를 일으켰다. 홍콩 380여명의 구의원들은 서명으로 중공은 “뻔뻔하게 계약을 찢어버렸다”고 항의를 제기했다. 홍콩 일매체 창시인 리즈잉(黎智英)은 말했다. “중공의 압제하에 홍콩인은 오직 두가지 선택뿐이다. 이민하거나 혹은 남아서 끝까지 전투를 하는가 이다. 나는 끝까지 전투할 것이다.” 5월 24일 홍콩인은 악법 반대 대행진을

거행했다. 5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신문 발표회의에서 말했다. 중공은 승낙했던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변경했다. 그는 미국정부에서는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철회시키고, 홍콩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에 참여한 중공과 홍콩 관원에 대해 제재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은 또 홍콩 여행법을 수정할 것이며, 중공군위범위에 속하는 대학생과 연구생의 비자를 폐기시키고 출경 조치를 내릴 것이다. 중공의 행위는 아마도 하늘에서 또 한번 사람들에게 중공의 사악을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중공과 멀리해야만이 천멸중공때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루밤사이에 가만히 세워진 베를린 장벽

제 2 차대전 알타회담 후 스탈린의 충실한 신도 우브리시는 베를린에서 친소의 임시정부를 설립했다.

1961년 8월 12일 밤, 동독정부는 하루밤사이에 동서 베를린 변경에 철사, 시멘트, 보루, 강한 탐조등으로 구성된 155 킬로미터가 되는 베를린 장벽을 세웠다. 동독정부는 “장벽을 넘는자는 반드시 죽인다”라는 밀령을 내렸다. 본래 서베를린에서 수입이 짝 짝한 동독인은 하루밤사이에 영원히 직장을 잃게됐다. 그때로부터 베를린 장벽은 28년 간 똑바로 서있었다.

등소평 : “일국양제”는 수법 조작이 아니다

1997년 3월, 등소평은 홍콩 총독 마이리호우를 접견할 때 표시했다: 우리는 홍콩을 하나의 특수한 지역으로 처리할 것이다. 상당히 긴 시간내에 홍콩은 능히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

1983년 6월 25일, 등소평은 홍콩구 전국인대대표와 정협위원들을 접견할때 “‘일국양제’이며, 홍콩에서 자본주의 실행은 50년 불변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공이 종래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고려해서 중영연합에서는 서명한 이후에도 홍콩인들은 그래도 “말이 뛰지 못한다.”, “댄스를

추지 못한다.”, “주식을 을 하지 못한다.면서 걱정했다. 그리하여 등소평은 또 각 종 기회를 이용해 외부를 향해 말했다: 우리는 홍콩의 정책을 50년 불변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일국양제’의 방식으로 홍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 충돌이 아니고, 수법을 조작하는 것도 아니다.”이 앞의 절반 구절은 양모(阳谋)이고 확실히 일시적인 감정 충돌이 아니라는 바로 오랫동안 계획해온 점령이며 뒷말은 음모이다. 당을 보존하기 위해 수법을 조작하든 말든 수요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중공이 널리 보급하는 홍색 육아교육

중공은 각지에서 홍색 교육을 추진하여 이미 학교, 유치원에까지 침투시켰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소학생: 아빠가 왜 애국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한 남성은 크게 실망했다. 그의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는 소학교 학생이 선생님을 도와 시험지를 나누어 줄 때 선생님은 시험지를 나누어 줄 때 말없이 조용히 나누어 주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가끔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칭찬하고, 성적이 차한 아이들을 상대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매 한사람을 대하라고 알려준다.

대륙으로 돌아온 후 학교에서는 ‘지도전’, ‘지뢰전’을 보게 하고, 공산당에 감응하는 문장을 외울 것을 요구했다. 1,2년 사이에 아이의 두뇌는 이미 대륙의 아이들과 같았다. 어느날 무한 폐렴에 대해 말하던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는 왜 애국하

지 않아요?” 라고 물었다. 아이는 ‘미국을 좋다고 말하는것이 바로 선생님의 말처럼 중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고 여기고 있었다.

무한 폐렴은 ‘미국인이 전파한 것’ 이라는 거짓말이 널리 퍼지면서 ‘부체식’의 선전은 중국인의 사상의식을 상실하게 했다.

50년전 ‘문화대혁명’ 광경이 재현되다

강서성의 한 유아원에서는 국기 게양식 때 선생님이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중국공산당과 국가지도자에게 충성한다는 맹세를 하게 했다. 다른 한 유아원의 아이들에게는 홍군과 팔로군 복장을 입히고, 학부모들에게도 군복과 노동자·농민의 복장을 입게 하고 발갈이, 모내기, 비료주기 등 중공이 연안시기에 벌렸던 ‘대생산운동’을 재현했다. 유아원에서 이런 활동을 전개하는 목적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공산당의 말을 듣고 공산당을 바싹 따르게 교육하려

는 것이라고 했다.

한번은 친자활동 중에서 한 남자애가 나무권총을 들고 “난 총으로 일본 놈을 물리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걱정하며 “이렇게 어려서부터 원한을 심어주니 이런 홍색 교육활동은 어린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다른 한 학부모도 중공의 “극단적인 애국 교육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세뇌 교육”이라고 했다.

바로 이런 홍색 교육중에 원한의 씨앗을 심어 주었기에, <신종코로나 병독은 울었다> <방창(方艙) 병원은 정말 신기하다.> 라는 이런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선악이 뒤바뀐 노래가 나타났던 것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학부모들도 이런 의식형태의 교육 환경에서 아이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세뇌를 당한 후 사상이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인 사고를 가질 수 없게된다.

■ 전통 ■

악비는 어떻게 “애국”을 했는가

인의의사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남송 시기 건주(虔州)에서 도적이 창궐하자 황제가 악비에게 평정을 명했다. 도적들은 악비의 기병에게 총총히 포위돼 목숨을 살려달라고 울부짚었다.

황제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놀란적이 있었기에 황제는 악비

에게 건주성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밀령을 내렸다. ‘송사(宋史)’ 기록에 의하면 악비가 주모자를 처형하되 협박으로 가담한 자들은 사면해 달라고 청했지만, 고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악비가 수차례 간청하자 고종은 그제야 사면령을 내렸다. 성안의 백성들은 악비의 은혜에 감동해 그의 (5면에 계속)



(4면의 계속) 동상을 세워 모셨다.

백성을 구제하고, 조정에 채무 탕감을 요청하다

여주(廬州)에 위기가 닥쳤을 때, 악비는 병사를 이끌고 포위를 풀라는 황제의 친서를 받고 급히 여주로 출병했다. 금나라 군사가 한 번의 싸움에 무너져 여주가 평정됐다.

악비는 백성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조정에 상소했다. “양양(襄陽) 등 여섯 군의 백성들에게 발갈이 소와 양식이 부족하오니 관청의 돈을 백성에게 대출하고, 연체된 빚을 면제하기를 바라오며,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온 숫자로써 그 지방 관리의 업적을 가능하는 표준으로 삼기를 바라나이다.”

무장(武將) 신분의 악비는 지방의 난국을 평정하는 동시에 민간 백성의 생계를 걱정했고, 단 몇 마디 말로써 백성을 안정시키고, 관리가 백성을 돌보는 관건적인 이치를 밝혔다.

“인(仁), 신(信), 지(智), 용(勇), 엄(嚴) 중 하나도 부족해도 안 돼”

조정에서 공로를 포상할 때 악비는 모두 아래관리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어떤 사람이 악비에게 용병의도를 묻자 악비는 말했다. “인, 신, 지, 용, 엄 중에서 하나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군량을 모을 때마다 악비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동남쪽 백성의 재력이 모두 소모되었군!” 형호(荊湖) 지방을 평정한 후, 악비는 백성들에게 밭을 일구게 하고, 군대에게 둔전을 일구게 해 매년 군량의 절반을 절약했다.

악비는 어질고 선량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비를 예우했으며, 고상하고 우아한 시와 곡을 암송하기를 즐겼으니 무장이지만 선비와 같았다. 그는 공을 세워 승진할 때마다 거절하며 말했다. “이것은 모두 장교와 사병이 힘썼기 때문인데, 저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천하가 언제 태평해지겠습니까?” 악비가 말했다. “만약 문관이 돈을 밝히지 않고, 무장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입니다.”

악비의 ‘정충보국(精忠報國)’은 아부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지 않으며, 인의를 실천하고 어디에서나 타인을 위하고 자신의 수양을 기본으로 하고 천하를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중화 전통문화 중 ‘애국’의 깊은 의미를 진정하게 표현했다.

하지만 중공이 주입하는 ‘애국주의’는 증오를 선동하여 중국인은 어려서부터 일본을 증오하고, 미국을 증오하며, 중공의 어두운 진상을 말하는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 이런 ‘애국’은 실질상 ‘애당(愛黨)’인데, 중국인을 공산당 정권을 지키는 도구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사실 진상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며, 무수한 세인에게 ‘애국’의 본래 의미를 헛갈리게 했다.

뉴욕상인 무한 폐렴에 걸린후 ‘9자 진언’을 넘해 병이 낫다

오스노 가드는 뉴욕에 사는 유대인 보석상이다. 전세기 60년대 미국에 이민을 왔다. 그녀는 가족보석장사의 주관이 며 올해 73세로 매년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수석과 기이한 보석 등 장식 재료를 찾는다.

3월 12일, 그녀의 남동생 일가족은 맨해튼과 롱아일랜드에서 주말을 보냈다. 동생 일가족이 떠난지 일주일 후 그녀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입안에서 금속 냄새 말고는 다른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후에 그는 매체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때 사람들은 무한 폐렴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다지 많이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미각을 잃는 증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3월 21일, 그녀는 차를 몰고 사우샘프턴 병원에 갔다. 의사는 그녀에게 폐렴 증상이 있다고 말하면서 집에 가서 자가 격리하고, 4시간마다 타이레놀(해열제)을 복용하라고 말했다.

가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집에서 자가 격리했다. 건강은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점점 더

안 좋아졌다. 점차 호흡이 곤란해졌고 온몸이 아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 그녀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가드는 “숨을 쉴 수 없었고... 말도 하지 못했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라고 말했다. 가드는 “혼자 있으면서 옆에 가족이 없을 때 숨을 쉴 수 없다는 공포는 아주 컸어요. ...이 병독은 사람을 세상과 격리하고, 고독의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반드시 혼자서 이 병을 감당해야 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6면에 계속)

(5면의 계속) 없지요.”라고 했다.

4월 23일, 가드의 친구인 파룬궁 수련생 애나 루이스는 ‘9자 진언’_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 (眞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워보라고 권하였다.

천천히 한마디씩 ‘9자 진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호흡이 돌아왔고, 3일 만에 정상인처럼 부드럽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가드는 ‘9자 진언’을 외우면

서 중공 폐렴 증상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심장병 및 기타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1년 전에 혈관 조영수술을 받고 나서 심장박동수가 분당 44~46(정상치는 60~100)이었는데 지금은 50~54가 됐다.

현재 가드는 매일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운다고 했으며 “잠자기 전이나 깨어있을 때, 길을 걸을 때,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 우울할 때, 이 진언을 외워서 지난 2~3주 동안 회복됐어요. 파룬따파가

저를 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전에는 기적을 믿지 않았는데, ‘9자 진언’을 외우는 것은 확실히 제 에너지 수준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켰어요.” 지금 그녀는 활력이 넘쳐 매일 2킬로미터를 걷고 일상적인 일도 다시 시작했다.

“저는 파룬따파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정말 반드시 파룬따파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애나에게 고마워요. 신께서 그녀와 파룬따파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처급간부 중공은 어차피 멸망하니 얼른 탈퇴해요

감수의 40여세 왕씨는 해외 파룬궁 수련생의 전화를 받을 때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수련생이 물었다. “현재 전염병이 계속 있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회식을 하십니까?” 그는 말했다. “우리 이곳에는 전염병이 다 나았기에 우리는 정부의 호소에 따라 처급이상의 간부들은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매주 200원씩 소비하여 영업액을 증가해야 해요.”

수련생이 말했다: “그러다면 당신들은 조심해야 겠습니다. 현재 전염병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씨는 큰소리로 미국을 욕했다: “미국놈들이 한

나쁜짓이 잦아요. 병독을 전세계에 전파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그가 욕을 다 한다음 수련생이 물었다: “당신은 어찌 진실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 병독은 중공이 전염병 상황을 은폐하고 중국 백성과 전세계를 기편해 전세계가 모두 중공 병독이 가져다 준 손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되고, 백성들이 실업을 당하고, 정부는 거액을 투입하여 역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라고 왕씨는 말했다.

수련생은 말했다. “중공은 일관적으로 나쁜일을 한다음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씩습니다. 이

번 전염병은 공산당을 겨냥해 왔습니다. ‘중공 병독’이라고도 부르고, 중공과 연결이 있고 그의 공적과 은덕을 찬양하는 사람은 모두 따라서 운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회식하는 사람들은 모두 ‘천안문 분신자살’ 기편극과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적출 진상을 들었다.

근 한시간을 듣더니 왕씨가 말했다: “나는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미국을 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말을 믿습니다, 공산당은 어차피 멸망 할 것인데 우리는 모두 퇴출 하 겠습니다! 당신들의 파룬궁에 감사드립니다!”

중공은 나쁜짓을 너무 많이 해 현재 하늘이 멸 하려고 하는데 그의 성원을 연류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중공조직에서 퇴출하는 것은 “영원히 당을 따라 가겠다”는 독서를 해제하는 것으로써, 신은 사람의 마음만 본다. 진심으로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퇴출할때 진명, 가명, 애명도 다 된다.

‘돌파프로그램’으로 해외 퇴당메일 tuidang@epochtimes.com 에 등록해 ‘3 퇴’성명을 발표 할 수있다.